

친구 잃은 슬픔



진명여중 1년 이 린 나

제가 살던 고장인 평택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댁에 심부름을 가는 도중 길가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집 옆집인 저의친구영이의 집에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란 저는 심부름 가는 것도 잊은채 영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행복한 비둘기가족”으로 불리우던 영이의 집에 무서운 화마가들이 닥친 것입니다. 엄마가 석유곤로에 불을 붙이고 기름통을 옆에 두고 청소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영이의 집은 붉은 악마의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화마는 려를 낼름거리며 청소하던 영이의 어머니와 공부하던 영이를 우리로 부터 앗아갔습니다.

아빠! 아빠! 목메이게 울부짖는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것 같습니다. 불길속을 뛰어 들어갈려고 발버둥치는 영이 아버지 모습은 차마 인간으로서는 볼수없는 참혹

한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저의 손은 눈밑으로 갔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주변엔 많을것입니다. 나의 친구의 생명을 앗아간 불이란 악마는 우리의 헛점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피땀흘려 모으고 모은 재산을 삼켜 버리고 재만남겨 놓은 불, 무서운 화마가 지나간 뒤에 울면서 땅을치며 후회해도 아랑곳 없다는듯이 인간들의 헛점을 노리는 불, 아차의 순간도 불에 넘겨주지 말고 우리의 소방시설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불을 마들자고 이연사의 애타는 절규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한번의 실수를 계기로 삼고 다시는 그러한 불행이 닥쳐오지 않도록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잠깐사이에 벌어진 이 광경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수 같은 불, 사회의 좀벌레를 우리는 유비무환의 뜻을 되새기며 자나

깨나 불조심, 너도 나도 불조심, 우리 모두 조심박사 같은 생활을하자고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담배 꺽초하나에도 무서운 화마를 신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픈줄 알고 내가 아까우면 남도 아까울줄 알고,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아낄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해 국가의 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관찰하여 화재의 원인이 되는 근본을 뿌리채 뽑아야 되겠습니다.

화재 대비는 나 한가정의 대비가 아닌 내 나라 조국강산을 살찌우게 하는 지름 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 대한의 자랑스런 아들딸, 소방시민이되자고 이 연사의 마지막 간곡히 호소합니다.

